

# 주거 특성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선숙\*

동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특성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6차년도 자료(2021년)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4,47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주거특성 변인으로 1인당 주거면적, 주거부담비 비중,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 그리고 강제이주경험을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주거면적, 구조·성능·환경설비, 그리고 주거형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1인당 주거면적, 구조·성능·환경설비, 그리고 주거형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거비부담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는 구조·성능·환경설비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안 좋아도 가족관계 개선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과 함께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개선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주거 특성, 건강,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조절 효과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22B032).

\* 주저자: 박선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Tel: 051-629-2124/E-mail: ssp2124@t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을 자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주거의 기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생활, 가족 공동생활, 사회생활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의 장소로서 기능을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주거는 가족의 거처와 재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 중요시하지만, 현대사회의 주거는 가족 휴식의 공간 기능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기능을 중요시하며, 편리성과 기능성 그리고 안전성을 중요시한다(김윤옥·박병남·김갑열, 2016). 또한 세대별 주거공간의 핵심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데 성인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세대는 자신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을 원하고, 결혼한 중장년층에서는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 노인 세대는 자녀나 사회생활을 위한 주거공간보다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위한 노인 부부만의 공간, 또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원한다. 특히 노년기에서는 퇴직과 더불어 사회적 대인 활동이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생활이 자신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거주환경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건강 및 경제 능력의 약화를 경험하기 쉬워 주거환경의 지원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김혜미, 2016). 또한 주거환경은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palacios et al, 2020), 열악한 주거의 질(housing quality)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wope & Hern nde, 2019).

국토교통부(2021a)에서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의 7.9%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8%가 지하·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주거 빈곤은 노년층의 건강(김동배·유병선·신수민, 2012, 이병석, 2013, 이지은, 2022)과 삶의 질(이병석, 2012; 임광빈·강동훈, 2018; 박은주·권현수, 2020)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빈약한 주거환경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주거 빈곤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데 주거 특성을 단절적인 이진변수로 취급하여 주거 빈곤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주거 특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진화 할 수 없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또 이진화 변수로 사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에서도 제한이 많아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진다 단점이 있다. 또 패널데이터인 종단형 자료인 경우에도 주거 빈곤을 이진 변수화하여 연구년도 중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연도의 횡수를 주거 변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 등 본질적으로 주거 특성을 이진변수로 취급하고 있다(조영민 외, 2022). 또한 주거 특성 안에는 주거밀도, 주거관리비 비중, 주거시설, 주거 소유 형태 등 다양한 하위 변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변수로 분석하는 경향(임광빈·강동훈, 2018)이 있다.

박은주와 권현수(2020)의 연구에서는 주거 빈곤 개념을 넘어서 주거 특성 변수로 일반화하여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주와 권현수(2020)의 연구를 참조하되 주거 특성 변인으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 면적을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고, 경제적 부담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 비중, 그리고

시설 측면 변인으로 필수설비와 구조·성능·환경 설비, 그리고 주택 관련 변인으로 자가, 전세, 그리고 월세 등 주거 형태와 강제 이주 경험을 하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주거 특성 변인을 단절적인 이진변수가 아닌 연속형으로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명확한 주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특성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 관계 설정 외에 노인에게 일종의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심리, 정서적인 외부 환경 요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지는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하영미·최현경, 2014; 김지현·박숙경, 2015; 강종필·윤지영, 2017; 엄사랑 외, 2021). 자신의 힘든 시기에 주변 지인과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층으로 접어들면 사회적지지의 원천이 가족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또 정보 부족으로 인해 노화로 인한 갑작스런 신체 기능의 약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책이 힘들어진다. 이것이 노년층에서 유일한 사회적지지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다.

이선화(2015)는 주거환경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주택 안정성과 이웃 관계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지은(2022)의 연구에서도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장애 유무의 이중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준상·김향아(2017)와 박선숙(2019)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 특성은 정신건강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노인의 주거환경과 가족관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여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조절효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인에게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건강, 사회보장, 안전, 가족생활 등 다양한 사회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다(Murie, 2003). 특히 노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적절한 경제적 부담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기 원하며, 주택공급과 관련한 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사회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박은주·권현수,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주거환경과 그 관계에서 심리·정서적인 요인의 가족관계의 역할을 동시에 규명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 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주거환경과 함께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개선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주거 특성

이숙현(2020)은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사회권으로 인식하여 노인복지 정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불안정한 주거상태는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Arthurson & Jacobs, 2003). 주거 빈곤 상황은 사회적 배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김홍철, 2019), 이들의 독립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도 동시에 야

기한다는 점에서(임재현, 2011; 김동배 외, 2012; 이병석, 2013; 최성미, 2015) 노인의 주거 빈곤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영국(2018)은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특성상 노인 주거복지는 노인 빈곤과 의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노인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규정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한다. Leventhal과 Newman(2010)은 주거환경을 규정하는 주거 특성을 물리적인 주택의 질, 과밀 정도, 주거비 부담, 주거 이동성, 자가 소유, 공공 지원 주택 여부 등 6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거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주거 특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주거 빈곤의 조작적 정의를 먼저 규정한 다음, 주거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거 빈곤은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 조사하는 주거 관련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최저 주거기준미달이고 두 번째 측면은 경제적 측면으로 주거비 과부담, 마지막으로 주거 불안정 정도이다.

먼저 최저 주거기준미달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저 주거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최저 주거수준의 기준은 면적 기준, 필수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 설비기준 등을 포함한다. 최소 주거 면적은 가구원 수별로 총 주거 면적이 미달인 경우, 필수 설비기준은 ‘상하수도 단독시설’, ‘부엌 단독 사용과 입식 여부’, ‘화장실 단독 사용과 수세식 여부’, ‘목욕시설 단독 사용과 온수시설 여부’ 등이 있다. 또 구조·성능·환경 설비기준은 ‘구조물 재질의 양호함과 주택의 내구성 견고함’, ‘적절한 난방설비·채광·방음·환기 갖춤’, ‘진동·악취·소음 및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생활안전’, ‘절벽 붕괴·홍

수·해일·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등이 있다. 반정호(2006)는 주거 빈곤 여부를 최저주거기준 중 최소 주거 면적 기준 지표로 측정하였고, 김현중 외(2010)는 구조·성능·환경 설비기준을 제외한 최소 주거 면적 기준, 방수기준, 필수 설비기준을 적용하여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주거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또 조민혁과 박형준(2017)은 최저 주거기준미달 여부를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주거 면적 및 방수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설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경제적 측면으로 주거비 부담을 주거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권연화와 최열(2015)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0%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 빈곤을 규정하는 측면은 주거 불안정 정도이다. 사람은 일생 내내 주거환경을 자주 바꾼다.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가 주택 소유가 아닌 경우 집주인의 강요에 의하거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김동배 외(2012), 최은희 외(2018)과 박은주·권혁수(2020b)의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 외에도 주거나 점유안정 변인도 주거 빈곤의 변인으로 연구하였다.

## 2) 노인의 주거 특성과 건강과의 관계

물리적 환경인 주거(housing)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공간이며,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이숙현, 2020). 주거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봐도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승연 외, 2013; 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9; Baker et al., 2017). 특히, 가정 내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혹

은 소득이 낮은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은 주거와 관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임세희, 2019).

열악한 주거환경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최승철, 2007; Myers, et, al., 1996; Ellaway & Machintyre, 1998; Pevalin et al., 2017, Boch et al., 2020). 지하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 최승철(2007)의 연구에서는 지하 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습기, 환기, 소음, 악취 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피부병 및 호흡기 관련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Myers, et, al.(1995)는 방 1개당 거주 인원인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도 감소를 매개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더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저소득 가구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9.1년으로 전국 평균(7.6년)보다 오래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국토교통부, 2021b). Boch 등(2020)은 미국 2014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균열 유무, 배관 등 주거 문제와 주거 형태, 과밀 등의 주거 특성이 주관적 건강, 의료서비스 이용, 그리고 병원 입원에 유의미한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Pevalin 등(2017)은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채광, 난방, 천장과 바닥 누수, 창문, 결로현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이 장기화될수록 정신건강이 유의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주거유형에서 자가 주거의 경우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공공주택(social housing)의 경우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주거환경과 물리적인 건강 상태의 단기적 인과관계는 다양한 외부 교란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거환경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계 연구는 낙상 등 신체기능의 해

손 위험, 또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은 신체의 노화로 인해 낙상 등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전국 노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96.7%가 낙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낙상 경험이 없는 노인들의 75.1%도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낙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한지나, 2020) 주로 집이나 동네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낙상 등의 신체적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한상우(2021)는 주거환경 변화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의해 낙상 위험과 건강 상태 중 이동성과 사회참여 영역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지나(2020) 연구에서도 고령 친화 주거환경은 주관적 건강이 나쁘고, 시각 손상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도 낙상 두려움을 유의적으로 완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영민 외(2022)는 주거 특성이 성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건강변수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으로 나누고 또 신체 건강은 주관적 건강 수준, 만성질환 여부, 입원 여부로, 정신건강은 우울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의 주거 형태를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눠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에는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공공임대 거주, 주거급여 수급 등이, 만성질환에는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급여 수급이, 입원 유무에는 가구원 수와 주거비 과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우울에는 가구원 수, 거주지역,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이사 횟수, 자가 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승연 외(2013)의 연구에서 주거환경과 건강 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소 주거기준 미달(과밀, 필수설비 기준과 구조·성능·환경 설비기준)과 자가 소유 여부는 신체적 건강(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 정신건강(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 방법으로 박금령과 최병호(201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비주택 거주(예: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는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동배 외(2012)는 주거 빈곤을 주거 불안정, 과도한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고 주거 빈곤이 정신적 건강 상태인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김태완 외(2015)는 노인의 빈곤을 소득, 주거, 그리고 의료 빈곤 등 다차원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 빈곤 노인 중 47.5%가 우울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 특성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3) 노인의 주거 특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

삶의 만족도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Neugarten, 1961), 또는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과 수용의 의미로써 인간 전체의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족(Sousa & Lyubomirsky, 2001)으로 정의될 수 있고, 생활 만족도, 삶의 질, 행복감, 또는 심리적 복지감 등의 용어로 혼재해 사용되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요인, 심리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권혁창·장성현, 2022). 최근에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주거 관련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노인주거환경과 노인의 삶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숙영(2006)은 스웨덴의 노인보호주택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주택 유형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분석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노인주택

환경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박현민(2020)의 연구에서도 비수급 빈곤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김정수(200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비해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비협조적이고, 의무적이거나 또는 확일적 선택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영균과 김동규(2007)는 거주지역(구시가지, 신시가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주택의 물리적 특성 외에 주택 주변 환경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박은주와 권현수(2020)는 주거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주거불안정성, 농촌지역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주거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였다.

윤해수(2010)는 주거의 객관적 특성을 가구 크기, 주택 형태, 거주기간, 침실 공동 사용 형태, 주택 소유 형태를 선정하고 주거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주거 특성 중 거주기간, 침실 공동 사용,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광빈과 강동훈(2018)은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주거의 경제적 특성으로 주택가격, 주거 면적, 광열수도비를 선정하였고, 지역적 특성으로 거주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가격과 주거 면적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의 영향이 있었고, 거주지역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의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4) 가족관계 만족도와 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관계(양옥경, 2001)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종의 가족 내 사회적지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에게서 올 수도 있고, 자녀로부터 올 수도 있다. 가족관계가 좋으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도 상승하게 된다. Lyubomirsky & Diener(2005)는 인간의 행복감의 근원을 소득과 함께 가족관계를 제시하였다. 소득은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지만 가족관계는 수용, 소속, 사랑 등 인간의 정서적 욕구나 안정감을 충족시켜 준다,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고 그 대신 가족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 즉, 노인의 가족관계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지적 보호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김미호·문재우, 2013; 정진섭·하규수, 2014; 이준상·김향아, 2017).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가진다(나은영·김혜숙, 1997). 좋은 가족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자원이 된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특히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변수이다. 노인에게 가족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적 노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유리되기 쉬운 노년기에 정서적 지지, 정보의 제공, 물질적 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정경희, 2018).

이병석(2013)은 노인의 주거 빈곤이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주거 빈곤의 측정변수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 빈곤이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지는

(2022)은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장애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지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가족, 즉 대안 가족이나 유사 가족의 존재가 지지적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과 소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최희경, 2008; 이진숙, 2010). 또한 독거노인의 유사 가족관계는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장덕희·이경은, 2013)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과 건강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중요한 사회적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적 유사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21년(16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단위 패널조사 중에서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로, 제주도 지역과 농어촌 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전국 대표성이 매우 높은 조사로 알려져 있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과다 표집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연구에 적합한 패널조사로 알려져 있다(박은주·권희상, 2021). 2021년 16차 패널조사는 2021년 시점에 응답하였으나 조사 시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4,47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여자	2796	62.5
	남자	1681	37.5
연령	60대	842	18.8
	70대	2041	45.6
	80대	1466	32.7
	90대 이상	128	2.9
학력	무학	756	16.9
	초졸	1842	41.1
	중졸	840	18.8
	고졸	748	16.7
전문대 이상	전문대 이상	291	6.5
	전문대 이상	291	6.5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1982	44.3
	유배우자	2495	55.7
종교	무종교	2064	46.1
	종교	2413	53.9

<표 1>에 따르면 총 4,477명 노인 중 여자는 전체의 62.5%, 남자는 37.5%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전체의 18.8%, 70대는 45.6%, 80대는 32.7%, 90대 이상은 2.9%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졸업이 전체의 41.1%로 과반에 가깝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중졸이 18.8%, 무학이 16.9%, 고졸이 16.7%,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55.7%로 과반을 약간 넘었고,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전체의 44.3%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종교가 전체의 46.1%, 유종교가 53.9%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통계 변인 중 성별은 여성=0, 남성=1, 연령은 60대=1, 70대=2,

80대=3, 90대 이상=4, 학력은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전문대 이상=5, 배우자 유무는 무배우자=0, 유배우자=1, 종교는 무종교=0, 유종교=1로 코딩하였다.

주거특성 변수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 면적은 주거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면적의 단위는 m<sup>2</sup>이다. 주거부담비중은 박은주·권현수(2020) 연구를 참조하여 가처분 소득 중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등 주거와 관리에 관련된 비용과 주택대출상환액의 합을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가처분소득 중 부(-)의 가처분소득 자료가 하나 있어 이 케이스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필수설비는 5가지 필수설비 중 적절한 경우는 1로 하고 부적절한 경우는 0으로 하여 이들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 상하수도의 경우 단독사용인 경우만 1로 하고, 기타의 경우 0, 부엌은 입식단독사용인 경우 1, 기타인 경우 0으로, 화장실은 수세식 단독사용만 1로 하고 기타는 0으로, 목욕시설은 온수 단독사용만 1로 하고, 기타는 0으로, 난방시설은 기름, 가스 전기보일러와 중앙난방(지역난방)은 1로, 기타는 0으로 하였다.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설비의 경우 재질이 양호한 경우,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가 적절한 경우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이 없는 경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우를 1로 하고 기타인 경우 0으로 하여 이들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주거형태는 김동배 외(2012)와 박은주, 권현수(2020) 연구를 참조하여 비가구원 정의와 기타=1, 월세=2, 보증부월세=3, 전세=4, 자가=5로 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주거형태가 양호한 것으로 하였다. 강제이주 경험은 최은희 외(2018) 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문제와 내/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이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자발적 이주인 경우는 0으로 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Likert로 측정된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1=아주 안 좋음, 2=건강하지



않은 편, 3=보통, 4=건강한 편, 5=아주 건강으로 역 코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 가족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 등 8개 하위영역에 대해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의 형제간 만족도 등 3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에서 Likert형 척도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부적절한 설문문항 제거 기준은 요인적재값 0.5로 하였고, 요인적재값 추정방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고유값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동설명력은 가족관계 만족도는 68.797%로 50.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43.691%로 50.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ronbach  $\alpha$  값은 삶의 만족도에서는 0.801,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0.729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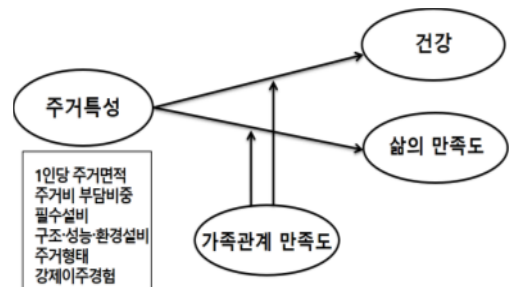
구성개념	측정문항	요인적재값	고유값	변동 설명력	Cronbach $\alpha$
삶의 만족도	건강	.551	3.495	43.691	0.801
	가족수입	.612			
	주거환경	.563			
	가족관계	.601			
	직업	.708			
	사회적 친분	.696			
	여가생활	.642			
	전반적 만족	.861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661	2.064	68.797	0.729
	자녀관계	.911			
	자녀 형제관계	.893			

### 3. 절차

본 연구에서는 주거 특성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또 이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거 특성으로는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1인당 주거면적을 선택하였고, 경제적 변인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인 주거비부담 비중을, 그리고 주거시설로 상하수도, 입식 화장실, 화장실, 목욕실 등 필수설비 정도와 주택 재질, 방음, 채광, 진동, 누수 등 주택의 구조·성능·환경설비 정도, 그리고 주거 형태, 마지막으로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강제 이주 경험을 선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주거 특성 변수를 최대한 연속형 변수로 변환한 다음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0.0이다. 기초분석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고, 중요 변수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 (1986)이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Ⅲ.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아래의 <표 3>은 연구변수인 노인들의 주거특성 변수와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일인당 주거면적 평균은 47.47m<sup>2</sup>, 주거부담비중은 평균 13.84%, 필수설비는 평균 4.92개, 구조·성능·환경설비는 평균 4.37개, 주거형태는 평균 4.10으로 대부분이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제이주경험은 응답자의 13%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평균 2.74, 삶의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3.32, 가족관계 만족도는 7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5.45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수	일인당 주거 면적	주거 부담	필수 설비	구조· 성능· 환경 설비	주거 형태	강제이 주경험	건강 수준	삶의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일인당 주거면적	1								
주거부담	.08***	1							
필수설비	.08***	0.03	1						
구조·성능· 환경설비	.07***	0.01	.22***	1					
주거형태	-.07***	-.03*	.06***	.03*	1				
강제이주	-.04**	.09***	-.01	-.01	-.05**	1			
건강수준	.02	-.02	0.50***	.08***	.12**	0.01	1		
삶의 만족도	.13***	-.04**	.09***	.20***	.16***	-.03	.40***	1	
가족관계 만족도	.12***	-.02	.05*	.11***	.08**	-.05***	.13***	.47***	1
m±sd	47.47± 23.01	13.84± 29.75	4.92± 0.36	4.37± 1.12	4.10± 1.46	0.02± 0.13	2.74± 0.90	3.32± 0.50	5.45± 0.97

\* p<.05, \*\* p<.01, \*\*\* p<.001

주거특성변수 중 일인당 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변수들 간에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에 반해 주거형태는 필수설비와 구조·성능·환경설비와 정(+)의, 일인당 주거면적과 주거비부담비중과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강제이주경험은 주거비부담비중과 정(+)의, 일인당 주거면적과 주거형태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수준에서는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삶의 만족도에서는 일인당 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와 정(+)의, 주거비부담비중과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일인당 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 건강수준,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강제이주경험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 2. 주거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주거특성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변인과 주거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주거특성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1인당 주거면적이  $\beta=0.046$  ( $p<.001$ ), 구조·성능·환경설비가  $\beta=0.045$ ( $p<.01$ ), 주거형태에서는  $\beta=0.054$ ( $p<.001$ )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주거비부담비중, 필수설비, 강제이주경험은 노인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즉 1인당 주거면적이 넓거나,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주거형태가 양호할수록 노인의 건강도 유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추가로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beta=0.112$ ( $p<.001$ )로 가족관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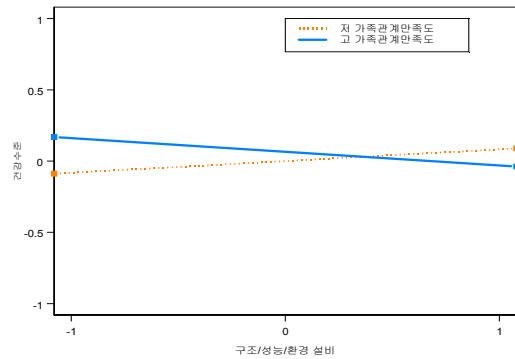
도의 유의한 정(+)의 주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형에서는 구조·성능·환경설비에  $\beta = -0.178(p < .01)$ 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표 4> 주거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56	3.134**	.055	3.075**	.054	3.037**
연령	-.128	-7.865***	-.130	-8.021***	-.131	-8.028***
학력	.145	8.137***	.143	8.065***	.145	8.161***
결혼상태	.035	1.823	.032	1.655	.032	1.689
종교	-.022	-1.428	-.030	-1.930	-.028	-1.851
1인당 주거면적	.046	2.700**	.030	1.776	.033	1.246
주거비 부담비중	-.019	-1.218	-.017	-1.150	-.072	-1.959*
필수설비	.019	1.229	.022	1.412	.002	.082
구조·성능·환경설비	.045	2.897**	.037	2.378*	.082	3.620***
주거형태	.054	3.363***	.048	3.042**	.066	2.595**
강제이주경험	.019	1.216	.021	1.395	.022	1.031
가족관계만족도			.113	7.425***	.065	.305
가족*주거면적					-.003	-.071
가족*주거부담					.062	1.640
가족*필수설비					.238	1.099
가족*구조성능환경					-.178	-2.759**
가족*주거형태					-.047	-.930
가족*강제이주					.003	.130
모형통계량	R <sup>2</sup> =0.083 F=33.234***		dR <sup>2</sup> =0.012 dF=55.132***		dR <sup>2</sup> =0.003, dF=1.968	

\* p<.05, \*\* p<.01, \*\*\* p<.001

조절효과를 도형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에서 구조·성능·환경설비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가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훨씬 양호한 건강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구조·성능·환경설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 3. 주거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주거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표 5>)에서는 1인당 주거면적은  $\beta = 0.169(p < .001)$ , 구조·성능·환경설비는  $\beta = 0.151(p < .001)$ , 주거형태는  $\beta = -0.093(p < .001)$ 로 정(+)의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1인당 주거비부담비중은  $\beta = -0.039(p < .01)$ 로 부(-)의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을수록, 주거형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유의하게 상승하는 반면 주거비부담 비중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추가로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와 주거특성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 모형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주효과는  $\beta = 0.818(p < .001)$ 로 정(+)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조절효과는 구조·성능·환경설비에서만  $\beta = -0.248(p < .001)$ 로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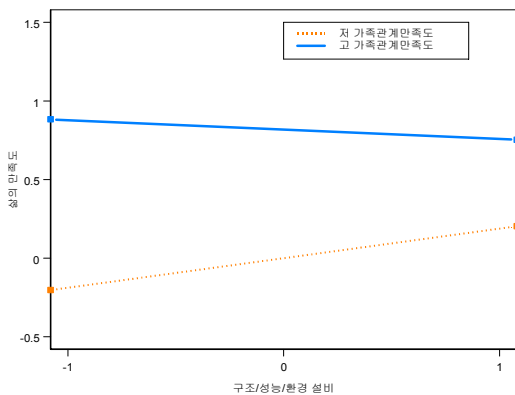
<그림 3>을 보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인 주거환경과 관계없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보다 유의한 차이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차이는 또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열악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표 5> 주거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04	.229	-.001	-.033	-.001	-.031
연령	-.055	-3.442***	-.061	-4.090***	-.060	-4.031***
학력	.123	7.020***	.116	7.150***	.119	7.356***
결혼상태	.104	5.491***	.093	5.303***	.093	5.341***
종교	.054	3.577***	.030	2.115*	.031	2.235*
1인당 주거면적	.169	10.115***	.118	7.611***	.092	3.772**
주거비 부담비중	-.039	-2.581**	-.035	-2.523*	-.085	-2.531*
필수설비	.017	1.109	.026	1.814	.047	2.160*
구조·성능·환경설비	.151	9.896***	.124	8.772***	.188	9.087***
주거형태	.093	5.915***	.076	5.192***	.089	3.867***
강제이주경험	-.017	-1.147	-.009	-.637	-.015	-.746
가족관계만족도			.364	26.147***	.818	42.04***
가족*주거면적					.058	1.495
가족*주거부담					.057	1.659
가족*필수설비					-.252	-1.278
가족*구조성능환경					-.248	-4.237***
가족*주거형태					-.041	-.898
가족*강제이주					.015	.781
모형통계량	R <sup>2</sup> =0.118, F=38.724***		dR <sup>2</sup> =0.128, dF=683.690***		dR <sup>2</sup> =0.006, dF=5.007***	

\* p<.05, \*\* p<.01, \*\*\* p<.001



<그림 3>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 변인을 파악하고 이 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4,477명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특성 변수는 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비중,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 강제이주경험 등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는 1인당 주거면적,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는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주거비부담비중, 필수설비, 강제이주경험은 노인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즉 1인당 주거면적이 넓거나,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주거형태가 양호할수록 노인의 건강도 유의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특성이 성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영민 외(202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낙상 두려움의 관계에서 고령친화주거환경의 조절효과를 밝힌 한지나(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노인의 주거에 대한 구조와 성능, 환경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편의 시설 및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마찬가지로 1인당 주거면적,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는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주거비부담비중은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즉,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구조·성능·환경설비가 많을수록, 주거형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유

의하게 상승하지만 주거비부담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주택가격과 가구원당 주거 면적 및 총생활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광빈·강동훈(2018)의 연구와 일치하며, 주거 빈곤이 삶의 만족도를 하락한다는 박은주·권현수(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인 주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구조·성능·환경설비의 경우만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구조·성능·환경설비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훨씬 양호한 건강수준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이지은(202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주거 특성 중 필수설비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제 수준과 또 법적, 제도적 규제에 필수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서 차별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강제이주경험 역시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는데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활발히 이주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과 달리 노인 세대에서는 주거지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어 강제이주경험 역시 차별적인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주거비부담비중은 건강 상태와 달리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이 많거나, 은퇴 후 뚜렷한 소득

원천이 없는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관리 부담이 노인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 여부도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 변인임이 드러났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구조·성능·환경설비가 매우 열악한 경우라도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노인복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미래사회 건강한 노인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을 위한 주택과 시설을 갖추는데 소홀하였다(김영옥, 2018).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구조·성능·환경설비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거비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주거불안 심화 등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령층 노인을 위한 주거의 물리적·사회·경제적 개선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가구를 확대 보급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일부를 임대료 부분이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 관리에서도 구조·성능·환경설비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노인 가구의 구조·성능·환경설비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본인 등 3자가 주거환경 개선 자금을 공동 부담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은 생애 과정을 통해 누적적으로 경험되는 환경이므로 개인의 자존감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위한 정책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정은

화·이현주, 2021).

이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개선된 주거환경을 미래사회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구조·성능·환경설비와 노인의 가족관계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나쁘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가족관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건강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가족이 긍정적인 가족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노인프로그램은 개별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어, 노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을 통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노인의 생활 IT 정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참여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면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의 가족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손상된 가족이라면, 유사 가족 등의 현실적인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사회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가족관계를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유사 가족관계의 강화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최근에 유사 가족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최희경, 2008; 장덕희·이경은, 2013)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유사 가족관계 강화 등 현실적인 도입 방안 마련 및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 특성을 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비중,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형태, 강제이주경험 등 6개의 특성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요인별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연구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국민 대상 노인 실태 조사에 근거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 특성과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잠재성장모형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의 변화와 건강 상태와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 형태 등 주거 소유 형태는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주거 특성 중에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주거 소유와 형태별로 좀 더 세부적인 주거 특성과 건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종필, 윤지영 (2017). 다층모형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삶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89-98.
- 국토교통부 (2021a). 2020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2021b).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권연화, 최열 (2015). 노년층의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능력에 관한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5(4), 977-986.
- 권혁창, 장성현 (2022). 사회서비스 이용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지역별 비교, 한국복지패널연구, 117-131.

-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미호, 문재우 (2013). 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26.
- 김승연, 김세립, 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09-133.
- 김영국 (2018). 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국민연금기금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0, 79-110.
- 김운옥, 박병남, 김갑열 (2016).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64, 227-240.
- 김정수 (2007).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박숙경 (2015).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사회적지지가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4), 270-280.
-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 (2010).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간 격차. 1995-2005, 농촌계획, 16(1), 49-62.
- 김홍철 (2019).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231-247.
- 박금령, 최병호 (2019).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00-518.
- 박선숙 (2019).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3), 311-330.
- 박은주, 권현수 (2020).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빈곤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4), 59-81.
- 박은주, 권현수 (2021). 노인주거빈곤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48, 4, 79-106.
- 박현민 (2020). 비수급 빈곤 노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반정호 (2006).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2, 84-93.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가족복지학, 8(8), 119-147.
-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2021).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3), 1-12.
- 윤해수 (2010). 노인의 주거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신, 이훈구 (1997).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97-105.
- 이병석 (2012). 노인의 주거빈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화 (2015). 노인의 주거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영 (2006). 스웨덴 노인보호주택을 대상으로 한 노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주거환경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19-27.
- 이숙현 (2020).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거빈곤과 문제음주의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40(1), 520-559.
- 이영균, 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준상, 김향아 (2017).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27-36.
- 이지은 (2022).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와 장애 유무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2(3), 455-478.
- 이진숙 (2010). 가족 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 임광빈, 강동훈(2018).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467-479.
- 임세희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 장덕희, 이정은 (2013). 독거노인의 유사가족 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229-254.
- 정경희 (2018).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6-18.
- 정은희, 이현주 (2021). 중고령자의 주거환경과 자존감 및 건강에 관한 경로분석: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0, 2021 14:219
- 정진섭, 하규수 (2014). 노년기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5525-5533.
- 조민혁, 박형준 (2017).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2017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1-16.
- 조영민, 한경훈, 김석주 (2022). 주거 특성이 성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22년 *한국복지패널*, 49-72.
- 최승철 (2007). 사회경제적 약자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 지하 주거환경실태를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51, 117-132.
- 최은희, 권치홍, 임덕영, 이슬혜 (2018).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최희경 (2008). 저소득층 노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유사가족관계 연구. *가족과 문화*, 20(3), 63-97.
- 하영미, 최현경 (2014). 교정공무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3), 163-170.
- 한상우 (2021). 맞춤형 주거환경수정을 이용한 노인의 건강상태 차이비교 분석: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11(8), 176-184.
- 한지나 (2020).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낙상 두려움의 관계: 고령친화주거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5), 11-21.
- Arthurson, K., & Jacobs, K. (2003). Social exclusion and housing. Final Report.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 Baker, E., Beer, A., Lester, L., Pevalin, D., Whitehead, C., & Bentley, R. (2017). Is housing a health insul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6), 567-58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ch, S. J., Taylor, D. M., Danielson, M. L., Chisolm, D. J., & Kelleher, K. J. (2020). 'Home is where the health is': Housing quality and adult health outcomes in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Preventive Medicine*,



- 132, 105990.
- Ellaway, A., & Machintyre, S. (1998). Eose Housing Tenure predict health in the UK because it exposes people to different levels of housing related hazards in the home or its surroundings?, *Health and Place, 4*, 121-142.
- Leventhal, T., & Newman, S. (2010).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9), 1165-1174.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yers, D. Baer, W., & Choi, S. Y. (1995). The changing problem of overcrowding hous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 122-154.
- Neugarten, B. L.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alacios, J., Eichholtz, P, & Kok, N. (2020). Moving to productivity: *The benefits of healthy buildings, PLoS ONE 15*(8), 1-17. (e0236029).
- Pevalin, D. J., Reeves, A., Baker, E., & Bentley, R.(2017). The impact of persistent poor housing conditions on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study. *Preventive Medicine, 105*, 304-310.
- Sousa, L., & Lyubomirsky, S. (2001). Life satisfaction,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2*, 667-67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wope, C. B., & Hernández, D. (2019). Housing as a determinant of health equity: A conceptu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243*, 112571.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www.who.int.
- 투고일자: 2023. 9. 1.  
심사일자: 2023. 10. 4.  
게재확정일자: 2023. 10. 6.

# Influence of Housing Characteristics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unSook Park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this relationship. Data from the 16th Korea Welfare Panel (KOWEPS) survey in 2021 were used for the analysis. Participants were 4,477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methodologies employ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housing area per capita, proportion of housing burden, essential facilities, structur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residence type, and forced migration experience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variables for housing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older adults' health improved with better residential area per person, structure, performance,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housing type. Second, better residential area per person, structure, performance,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housing type led to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higher housing cost burden led to lower life satisfaction. Third,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structure,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th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even if the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poor, th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can be improved by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is, a plan was proposed to improve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by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along with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Housing Characteristics, Health,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